

무등산 호랑이 신명에 어깨 들썩~

창작연희극 '무등산 호랑이' 28일 광주상설마루서 공연 태평소·아쟁 등 전통악기 한자리 죽방울과 팝핑 등 연희놀이도

공연 초입에는 네 명의 신이 나와 하늘의 기운을 모으는 사신(四神) 춤을 펼친다. 신령한 호랑이의 탄생을 강령탈춤 중 '상좌춤' 부분을 모티브로 보여 주는 대목인데 스산한 분위기와 흥등, 몸짓이 어우러져 감상의 묘를 선사한다.

이윽고 스크린에는 공연자들의 춤사위에 따라 검은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흰 탈을 쓴 호랑이 한 마리가 무대에 올라 몸을 흔든다. 평화를 사랑하는 무등산의 산신은 그렇게 춤을 추며 자신만의 위용을 뽐낸다.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래이 국악상설공연 일환으로 창작연희극 '무등산 호랑이'를 오는 28일 오후 5시 광주상설마루(서구 상무시민로3)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백두산에 떨어진 불개가 고구려 멸망 후 서역을 떠돌다 무지개가 뜬다는 무등산을 찾아, 산신으로 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작중 물, 불, 바람, 흙의 기운을 관장하는 사신(정재일, 장명아 등)은 춤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 아기 호랑이를 탄생시킨다.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쁨을 담은 안무를 볼 수 있다.

이어 죽방울과 팝핑, 비나와 농구 등 전통 연희 놀이도 관객들을 만난다. 출연진(개똥이 역)이 회전하는 접시를 객석으로 건네면 이를 막대를 통해 건네받는 비나놀이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우리 전통악기 생황, 태평소, 해금을 비롯해 아쟁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남대 예술대 국악학과에서 피리를 전공한 장유진이 생황 연주를, 2020년 정규 1집 '해금에세이: 피어나다'로 데뷔한 김단비가 해금 연주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무등산호랑이(최지옥, 박시우 분)를 만난 개똥이(강미화)는 함께 팔발춤을 따라 가자고 말한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다양한 재주를 뽐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린, 비행기, 강아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공연 마지막에는 대형 태극기를 객석 위로 흔드



사자탈을 쓴 놀이꾼이 전통 민속춤 돌리기 '비나놀이'를 하는 모습.



'큰기놀이'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제공〉

는 큰기놀이도 볼 수 있다. 태평소, 생황 등 풍물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기존에 지배적이던 한의 정서 대신에 희망을 담아, 밝고 흥겨운 분위기로 무등산 호랑이만의 기상을 표현한다.

광주상설공연 백영경 기획자는 "공연은 무등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가설로부터 시작해, 호랑이가 광주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궁정의 산신'임을 전하는 내용이다"며 "연희놀이, 풍물, 판소리의 조화를 통해 우리 흥과 신명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중 개똥이 역으로도 출연하는 전통연희놀이

연구소 강미화 팀장은 "작년 11월부터 총 8회 진행해 온 '무등산 호랑이'는 대부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등산 호랑이'처럼 광주를 상징하는 소재를 다루는 공연들이 더 많이 열려, 관광객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올해에도 '탈춤 교실', '연희야 학교' 가지 등 다채로운 전통연희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현대사 비극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

해남 출신 김경운 시인 '무덤가에 슬퍼랭이만 붉었네' 펴내

해남 출신 김경운(사진) 시인은 '망글 시인'으로 불린다. 그는 오랫동안 김남주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 추모사업에 힘을 보탰다. 이전에는 광주 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는 해남 두문재에서 기거하며 시 창작을 비롯해 독서, 그리고 소일을 하며 정년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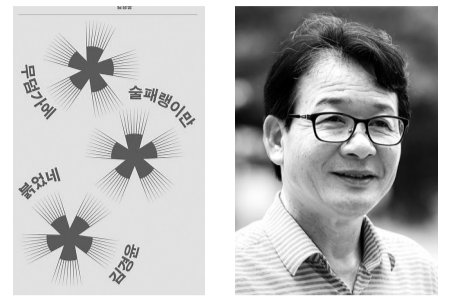
김경운 시인이 얼마 전 다섯 번째 시집 '무덤가에 슬퍼랭이만 붉었네'(겉은사람)를 펴냈다.

시인은 "지난해에 바닷가 인근에 집을 하나 얻어 살면서 작품을 썼다"며 "네 번째 시집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면 이번 시집은 불교적인 의미, 삶과 죽음 문제 등을 현대사의 비극 등을 모티브로 한 시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집에는 제주 4·3이나 여순항쟁, 광주 5·18 등을 단상으로 한 시들도 많이 담겨 있다.

시인은 "제가 아들을 잃고 나니 자녀나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았다"며 "제 개인의 슬픔을 넘어 국가나 사회적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 등 도시 소재가 됐다"고 덧붙였다.

"동백꽃 붉은 기운 안고 찾아간/ 제주시 조천을 선소리/ 그늘 깊은 후박나무 아래에서/ 불칸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토벌대 불구덩이에 아방 어명 다 잃고/ 조천바다 숨비소리로 살아온 세월/



고랑 몰라 고랑 몰라/ 목시물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슬픔의 발담을 쌓고 견뎌 온 세월/ 고랑 몰라 고랑 몰라...('불칸님의 노래' 중에서)

위 시 '불칸님의 노래'는 제주 4·3을 겪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랑 몰라"는 "말해 봐야 모르냐"는 의미의 제주도 방언이다. 화자는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 켜켜이 묻어둔 고통의 세월을 풀어낸다. 또한 화자의 눈은 제주 4·3, 여순항쟁을 넘어 광주 5·18로 이어진다.

김익균 평론가는 "우리 역사 곳곳에 놓인 아픔과 우리 땅 곳곳에 피고 지는 자연이 모두 광주의 오월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관점을 얻은 것은 이번 시집을 읽는 큰 보람의 하나다"라고 평한다.

한편 김 시인은 1989년 '민족현실과 문학운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아름다운 사람의 마을에서 살고 싶다', '신발의 행자', '슬픔의 바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 아동·청소년 '네 꿈을 펼쳐라'

광주 남구 '꿈의 오케스트라' 다음달 2일까지 단원모집



지난해 진행한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제공〉

1인 1악기를 대어해주고 전 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등, '한국형 엘 시스템' (베네수엘라의 무상 음악교육)을 표방하는 오케스트라가 신규 단원을 선발한다.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은 올해 활동할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단원을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배려, 화합의 즐거움을 가르쳐준다는 취지에서 2013년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정기음악회, 향상음악회 등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는 창구가 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이런 신청 가능하며 문화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를 비롯해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주자들을 모집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5시 30분~8시 30분) 문예회관 연습실에서 악기 파트 및 앙상블·합주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한다.

문예회관 서영란 팀장은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약보 정도만 볼 수 있다면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다"며 "오케스트라에서 꿈을 키워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구공공도서관에서 캘리그래피 체험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독서문화프로그램 '책 문화 DAY' 운영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삶' 일환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인 '책 문화 DAY'를 운영한다.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매달 마지막째주 수요일에 정기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캘리그래피, 오일 파스텔을 주제로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1월에는 '캘리그래피·소원봉투' 2월 '캘리그래피·압화 책갈피', 3월 '캘리그래피·수채화 엽서' 등이며 매달 12월까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라며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매달 마지막째주 수요일에 정기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 체험을 통해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공공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실험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실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 | |
|---------|------------------------|
|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
|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